

제보전화 : (051)500-5145 | 이메일 : opinion@kookje.co.kr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장학회(이사장 김영준)는 지난달 29일 장학회 일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UP 102% 백이무역주식회사(대표 백석현)는 최근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에 500만 원 상당의 홍삼사탕 100상자를 지원했다.



김형길 ㈜오성금속 회장은 최근 전국모범안전연합회 부산해운대지회(회장 성태석)에 560만 원 상당의 여객 경광등 160개를 기부했다.



강서구청에인협회(회장 광도호)는 최근 부산강서구청에인 복지증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동철)는 최근 SNS 및 블로그 이용 기관홍보 등을 포함한 '청소년활동 정보·홍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회장 신한춘) 지구촌재난구조단(단장 강호진)은 최근 '재해·재난 구조전문가 양성·경연 및 활동'을 개최했다.



고려연합 오산제련소(공장장 박기원 부사장)는 지난 7일 울산경찰청(청장 박성주)에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부산엑스포, 기술적 불평등 해결사 될 수 있다”

■ 장성은 스타트업 요크 대표

파리 3차 프레젠테이션 출원
개도국 태양광 프로젝트 소개
커피 판매 수익 아프리카 환원

“2030부산엑스포는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머뭇거리 이유가 없었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 진행된 2030세계박람회 유치 3차 프레젠테이션(PT)에 깜짝 출연한 스타트업 '요크'의 장성은 대표의 말이다. '요크'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위한 태양광 충전시스템을 선보여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업체다.

장대표는 엑스포PT 당시 부산대 이준이(기후과학과) 교수에 이은 두 번째 연사로 출연해 '혁신 기술과 열정을 가진 미래세대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 교수가 기후변화 등의 전세계적인 문제를 제시했다면, 장대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간의 노력과 기술 발전 등을 설명한 셈이다.



장성은 대표가 2030세계박람회 유치 3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요크 제공

장대표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태양광으로 랩톱을 충전하는 시스템(솔라카우)을 소개하면서 부산엑

스포가 기술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T에 직접 참여한 이가 바라본 부산의 PT는 어땠을까. 장대표는 “다른 참가국이 당황할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부산은방탄소년단(BTS)과 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활용해 이번 PT를 진행했다. 부산의 주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우크라이나(오데사) 등이 진행한 발표가 단순한 설명 위주로 진행됐다면, 부산의 PT는 구성에서 기존 PT를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장대표는 “부산의 PT는 3편의 발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었다”며 “부산 발표 이후 사우디 측 참가자의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요크는 부산이 아닌 경기도 의왕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장대표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2030 부산엑스포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수도권 등 부산 외 지역에서는 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 부산엑스포가 아직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카우’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전력부족 지역 아이들이 태양광 충전시설을 활용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자는 프로젝트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태양광으로 충전한 배터리를 활용해 집에서 자유롭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돕자는 게 기본 개념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에 해로운 케로신(등유) 랩톱 사용을 줄이고, 등유 수송 등의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개도국 정부가 전기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한국남부발전 등이 지난해부터 요크와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 브랜드 ‘이안투’를 론칭하기도 했다.

장대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커피 판매로 나오는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솔라카우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식”이라며 “많은 이가 사회공헌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맛의 품질도 지키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보호종료아동 돕는 온정에 감사” 올해 산타원정대 피날레

5억 모아· 연말까지 후원신청 가능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 본부가 진행하는 제16회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많은 산타들의 참여 행렬로 순항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부산지역본부장 노희현)은 지난 9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문화홀에서 올해 산타원정대 프로젝트 피날레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대사인 배우 고두심 씨가 홍보산타로 참여했고, 친선대사인 배우 손은서 씨가 MC를 맡았다. 부산시 송숙희 특보와 국제신문 배재한 사장, 그린노블클럽 부산후원회장인 경성리츠채장일 대표이사과 대표 후원사로 세정나눔재단 박순호 이사장, 신세계 센텀시티점 박순민 점장 등을 비롯해 지역 내 많은 기업들과 후원자들이 산타로 함께했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어린이재단 연말 대표사업으로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부산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들과 보호아동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자립을 앞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현재까지 약 5억



여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는 부산지역 내 보호아동들과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성장비 및 자립키트 지원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호 산타로 나선 채장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노블클럽 부산후원회장은 “홀로 서기를 앞둔 보호종료아동이 좀 더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는 많은 산타들이 보호자 마음으로 자립키트를 준비했다. 몸도 마음도 시린 겨울 아이들이 든든하게 자립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두심 홍보산타는 “이 시기 가장 외로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산타 여러분 덕분에 따뜻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해준 후원자님 모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2007년에 시작, 올해는 자립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보호아동과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후원신청은 올 연말까지 받는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대성문, 저축銀 ‘우수고객’ 지속적 이웃봉사 등 공로

㈜대성문(사장 채창호)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저축은행 5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거래고객 감사패를 받았다(사진)고 11일 밝혔다. 우수 거래고객은 저축은행 장기 이용 고객 중 이웃봉사 실천에 기여한 곳에서 선정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희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22개 유관기관장과 50개사 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저축은행 비전포럼과 함께 진행됐다.

㈜대성문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봉사단체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최영지 기자

고진호 퓨트로닉 대표, 적십자회비 5000만 원 전달

㈜퓨트로닉(대표 고진호)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연)에 최근 적십자회비 5000만 원을 전달(사진)했다고 11일 밝혔다. ㈜퓨트로닉은 자동차 산업기반 기술을 포함한 자동차 전장 부품 필수 부품 설계와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역사회의 나눔명가로도 유명하다.

고진호 대표는 “2020년에 적십자자역기부자 모임인 적십자 아너스클럽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십자회비회비기부금 국민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나눔을 희망하는 기관과 도움이 필요한 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다.

후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회협력팀(051-801-4052)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등 연탄나눔 봉사활동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7일 연말을 맞아 부산진구 초읍동 일대에서 겨울철 난방 취약가정을 위한 ‘노사함께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학 사장과 조준우 노동위원장, 박희용 부산시의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500만 원 상당 연탄나눔금 전달

과 함께 5개 가구에 연탄 1500여장을 배달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탄 나눔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나눔활동에 참여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노사가 함



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최근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방안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중국학회 회장에 김현태 교수

국립부경대학교는 김현태 중국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대한중국학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린 대한중국학회 2022년도 추계연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동정

전국 시·도 연구원 녹색성장 협약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은 지난 7일 부산연구원이 포함된 전국 시도연구원이 한국환경연구원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고

▶신순임씨 별세, 김석주(부산 효성시티병원 재활센터장)·김옥주(주택도시보육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씨 모친상=10일 오전, 민소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20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51-636-4444